

복식에 표현된 한·중 박쥐문양의 형태적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Bat Patterns in Clothes and Personal Ornaments of China and Korea

김순열* · 박춘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Soonyeol Kim · Chunsun Par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We, in this thesis, examin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bat patterns in China and Korea, along with a consideration of how two peoples understood bats and how their understanding of bats developed and also influenced the bat patterns.

As for research period, the Ming(明) dynasty and the Qing(清) dynasty in China and the Chosun dynasty in Korea were consider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clothes, personal ornaments, and embroidery. This research was don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bat patterns. The results of comparing and analyzing Chinese and Korean bat patterns were as follows:

In terms of similarity, people of two countries understood bat patterns as the symbol of happiness. Therefore, they were used in clothes, personal ornaments, and daily necessities.

In terms of difference, bat patterns of two countries had different shapes. In China, colorful and realistic single bat patterns were shown as intensive composition, whereas in Korea plain and simple bat patterns were used. These differences resulted from different way of understanding of bat pattern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bat patterns can be a great cultural commodity with high commercial values, if the traditional pattern is used as a unique element of the Oriental designs and altered and developed to attract consumers' attention.

Key Words : bat pattern, symbol, colorful, realistic, simpl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양이란 하나의 미적 형상의 표현으로서, 회화·조각과 구별되어 주로 공예·디자인 등 의식주 영역에서 장식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문양의 내용에는 순수한 장식 외에 우의(寓意)와 상징(象徴)을 내포하고 있어, 문양의 주제가 특정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의 조건은 문양주제에 함축된 특정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 문양의 주제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전승되어 온 민간풍속 즉, 민속과 깊은 관련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민속 중의 하나로, 박쥐에 대한 민속사상과 박쥐문양이 현재까지 전래되어 오고 있다. 우선 중국인들은 박쥐를 장수의 동물로서 선호하였다. 즉 박쥐의 수명이 백년 혹은 천년이라고 하여 장수의 동물로 취급되어, 당대 문헌에 의하면 육지(肉芝)의 하나로 도교의 경전인 「선경(仙經)」에서 장수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박쥐는 동서를 막론하고 수없이 많은 고사를 갖고 있다. 서양에서의 박쥐는 한결같이 악마를 상징하고 있으나,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복·길상의 상징이 되고 있다. 동양인들도 박쥐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긍정적 인 것만은 아니어서, 기장파(騎牆派)의 대명사로 교활함을 상징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서로운 의미를 갖고 있는 박쥐를 동양인들은 다양한 장식문양으로 애용하여 왔다.

그리하여 중국과 한국에서 박쥐에 대한 인식과, 이들

* Corresponding author: Soon Yeol Kim
Tel: 010-7444-3783, Fax: (043) 652-7010
E-mail: artksy010@hanmail.net

문양이 복식품 및 공예품에 반영된 양상에 관심을 갖게 되어 중국과 한국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박쥐의 사상과 박쥐문양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연구하였을 뿐, 중국과 한국의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중국에 있어서 박쥐문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한국의 박쥐문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중국과 한국에 있어 박쥐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보고, 그러한 고정관념이 복식문양으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박쥐문양의 상징성을 살펴 전통문양으로서 박쥐문양의 함축된 의미와 가치를 정의하는데 목적을 둔다. 셋째 박쥐문양의 유형을 살펴보고, 한·중 양국의 박쥐문양에 대한 의미의 차이를 찾아보기로 한다.

2. 연구의 내용·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박쥐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보고, 박쥐문양의 기원 및 역사적인 전개양상을 고찰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복식에 표현된 박쥐문양을 조형적·구성적·구도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박쥐문양에 나타난 상징성을 알아본 후, 한·중 양국에서의 박쥐문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중국에서 박쥐에 대한 관념이 문헌에 나타난 중국 고대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문양으로 나타난 명·청 시대(1368~1911년)를 중심으로 한다. 한국은 중국보다 비교적 늦게 나타나므로 조선시대(1392~1910년)를 시대적 범위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박쥐 문양이 표현된 복식과 자수공예품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에 사용되는 문헌 자료는, 중국의 경우 청대에 편찬한 사고전서(四庫全書)를 위주로 하여, 중국에서 발간한 각종 시각자료인 화보, 그리고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연구실 수장의 청말 유물 등 45점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자료는, 조선시대의 각종 서적을 중심으로 각 박물관 발간의 화보집 및 소장 자료 64점과, 온양박물관 자료 18점, 석주선박물관 유물자료 1점, 자수박물관 유물자료 4점, 고려대학교 박물관 자료 3점, 피어리스박물관 자료 1점과 숙대박물관 자료 2점 등의 자료를 촬영·수집하여 총 93점의 유물 그림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방법상 형태 고찰시 문헌이나 인쇄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관찰대상의 색상이나 크기 등에 대한 고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자료는 1차적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중국의 자료는 2차적 자

료를 사용한 점과 그 대상이 복식과 자수공예품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이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II. 박쥐와 관련된 고정관념

1. 중국

1) 긍정적 고정관념

중국 고대에 있어서의 박쥐는, 먼저 복익(服翼)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 고대인들은 박쥐가 그 날개를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이 박쥐를 비서(飛鼠)·노서(老鼠)·선서(仙鼠)라고 한 표현은, 즉 날아다니는 쥐, 오래 사는 쥐, 신선한 쥐라고 하여 한국에서 쥐라는 설명과 일치하기도 한다. 3세기 위대(魏代)에 이르러 복익(伏翼)이라고 표현하여 박쥐의 수명이 천년으로,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도교에서는 박쥐를 장수의 약으로 취급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즉 명대(明代)에 이르러서는 박쥐를 육지(肉芝)라 하여 도교의 경전인 『선경(仙經)』에서 장수의 약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전의 진대(晉代) 신선도교의 창시인 갈홍(葛洪)도 박쥐는 장수(長壽)의 상징이라 하였고, 『수경(水經)』에서도 박쥐를 신선이라 한다. 고서적 중 박쥐를 복식(服食) 즉 도가의 양생법으로 하는 이야기는 매우 많으나, 모두 근거 없는 말들이라고 생각된다.

2) 부정적 고정관념

삼국시대의 위국(魏國) 문제(文帝, 220-226)시대 조식(曹植)의 편복부(蝙蝠賦)에 의하면, 박쥐는 낮에는 숨어있고, 밤이면 활동하는 것이 쥐와 같다고 하였다. 박쥐의 형상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여 옛날 사람들의 눈에도 호감을 주는 동물이 아니었다. 또한 박쥐는 이솝우화에서는 간사함의 대상으로, 서양 유럽에서는 흡혈귀 등 공포의 대상으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혐오의 대상으로서 표현되었다.

2. 한국

1) 긍정적 고정관념

한국에서도 박쥐에 대한 관념은 중국의 전통을 따라,

여러 문헌에 의하면 중국 고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아(爾雅)』에 편복(蝙蝠)을 선서(仙鼠)라 하고, 백락천(白樂天) 시에 쥐가 천년이 되면 흰 박쥐가 된다고 한다. 또한 박쥐가 백세된 것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고 하여, 선서(仙鼠)라 한 것이다. 편복(蝙蝠)이 천세가 되면 그 몸이 희기가 은(銀)같다 하고 또 천년이 지나면 은백색(銀白色)의 박쥐가 되어 그 수명이 이천년이라 하였다.

이상과 같이 박쥐는 장수의 영물로 상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편복(蝙蝠)은 복(蝠)자가 복(福)자와 동음(同音)이므로 사용된 것도 있으려니와 이 박쥐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즉, 장수의 물(物)이요 또는 백세복(百歲蝠)으로 도현(倒懸)된 것을 득복(得服)하면 사람이 신선화하는 영물(靈物)인 선의만점(仙意滿點)의 뜻을 갖고 있다.

2) 부정적 고정관념

한편 ‘박쥐’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전 세계에 걸쳐 퍼져 있는 동물우화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박쥐의 생태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구전 및 문헌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순오지』에는 ‘박쥐구실’이라는 속담을 풀이하는 형식으로 실려 있다

박쥐가 자기 편한 대로 요리조리 변명을 하며 봉황과 기린의 잔치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야기에 따라 그 결과 박쥐가 각 편의 미움을 받아 동굴에 숨어 지내며 밤에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결말이 첨가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박쥐에 대한 서정은 중국과는 달리, 서구에서와 같이 그다지 미화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박쥐는 그 이중적인 성격과 불미스런 형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고정관념도 가지고 있다.

Ⅲ. 박쥐문양의 기원 및 역사

1. 박쥐문양의 기원

1) 중국

박쥐는 도교에서 신선으로 상징된다. 도교는 중국 고대의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신선사상의 기반 위에서 자연 발생하여, 거기에 노장사상·유교·불교, 그리고 통

속적인 여러 신앙적 요소들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도교에 사상을 둔, 박쥐의 상징성이 문양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 박쥐문양의 시원이 된다. 박쥐문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박쥐를 뜻하는 한자 ‘복(蝠)’의 발음이 ‘복(福)’자와 같기 때문에 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다는 것, 박쥐의 수명이 천세라 하여 장수하는 동물로 여겼다는 것, 또한 박쥐가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기원했다는 것 등이 있다.¹⁾

박쥐가 문양화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중국 특유의 언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편복(蝙蝠)의 복(蝠)을 동성동음인 복(福)으로 받아들여, 현세에서 절실히 회구하는 복(福)을 기원하는 마음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며, 둘째 박쥐를 장수의 영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복(福)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나타내거나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복(蝠)을 복(福)과 동일시한 중국인들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박쥐를 문양화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으리라 본다.

2) 한국

조선시대에는 건국 초기부터 유교를 국교로 하였음으로 문양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했으며, 박쥐를 단지 중요한 길상문양으로 인식하여 모든 공예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시문하였다. 박쥐문양은 주로 장수와 복을 상징하던 것 이외에 장수(長壽)·부(富)·귀(貴)·강녕(康寧)·다남(多男)의 오복사상과 결합하여 현세의 기복적(祈福的) 길상(吉祥)의 상징적인 의미로 일상 생활용품에 박쥐문양을 표현하여 현실적인 염원을 담은 예가 많았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박쥐문양은 초기에는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실적 시문으로 수용되었다.

2. 박쥐문양의 역사

1) 중국

중국에서 박쥐에 대한 민속 사상은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문양으로서 복식과 장식에 반영된 것은 매우 늦게 나타난다. 처음으로 문자가 직물에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양한(兩漢)시대부터이고, 송대(宋代)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상징형의 도안이 첨가된다. 송대의 유행은

1) 김종대,(2001).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한영문화사. p. 210.

원시유학의 영역에서 일보 진전되어, 이학(理學)의 발전에 따라 장식문양 영역에 있어 의식 형태적 경향성이 갈수록 반영된다. 그리하여 사회적 정치논리·도덕가치·종교 관념이 장식문양의 형상과 결합하여 모종의 특정 함의를 표현하며, 그것이 길상문양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격적인 박쥐문양은 명대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 명대는 상업경제가 번영하여 수공업이 매우 발달하게 되는데, 수공업의 발달은 많은 직물·기물들의 제조공업의 번영을 초래하여, 이들 제품 중에 길상문을 반영할 기회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청대에는 명대를 이어받아 각종 직물 및 공예품에 도교의 신선사상과 결부되어 박쥐문양이 최고의 전성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복이 발달함에 따라 빈틈없이 장식문양으로 관복이 채워져 있었는데, 이 문양은 격사(縹絲) 조직으로 짠 직물이다. 격사는 중국 특유의 수직물(手織物)로, 우선 경사를 걸어놓고 그 위에서 밑그림의 문양을 묘사함에 있어 색사를 감은 작은 북으로 위사에 심어서 짜는 방법이다.

또한 청대는 염직공예가 발달하면서 관복의 사치가 범람하게 된다. 박쥐문양은 주로 용포의 주문양인 용문과 함께 나타나며, 관복의 보자에 채용되고 있다. 여기에 동반하여 팔보문(八寶紋), 팔길상문(八吉祥紋), 암팔선문(暗八仙紋)을 채용하여 더욱 관복 및 직수예술(織繡藝術)의 발달을 촉진 시켰다.

2) 한국

한국에서의 박쥐문양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유입된 도교 신선사상의 영향으로 박쥐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

박쥐문양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그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선시대의 독특한 문양이라 생각되며, 조선시대의 공예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남녀·노소·귀천의 구분이 없는 한국적 전통 문양으로, 자연주의적 조형의지가 문양 형태로 표출되었으며, 풍토에 맞게 정착 흡수되어서, 우리 문화의 풍습과 생활양식에 알맞게 발달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은 조선말기(19세기~20세기초)에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시대 후기에 전성기를 이루는 까닭은, 문양이 도입될 당시 청을 오랑캐라 하여 배척감이 컸기 때문에, 조선내의 문양 전파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박쥐문양은 직물이나 장신구, 가구와 건축의 금속제 장식물, 자기 등의 여러 기물에 복(福)자를 대신해서 다양한 형태로 시문되었다. 그러나 관복이나 흥

배 등에서 박쥐문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신선도교 사상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IV. 한·중 복식의 박쥐문양

1. 중국

1) 명대의 박쥐문양

명·청의 양대는 송·원대에 발달한 직물제직 기술에 더하여, 새로운 제직법이 발달하면서 수공방직의 전성시대를 이루게 된다.

당시의 직물은 전국의 많은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전해 내려오는 유품들도 다수 보존되어 있다. 명대의 출토 유적지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북경의 정릉(定陵)으로, 수 백점의 의복과 필(匹)로 남아 있는 옷감들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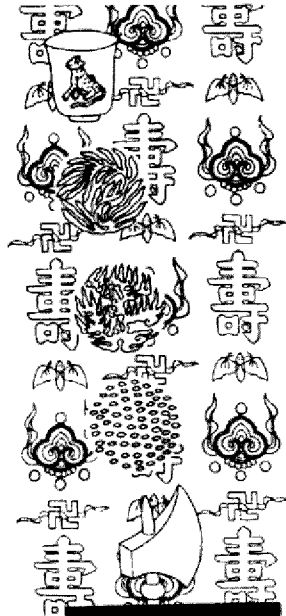
이 중에 제일 화려한 것은 신종(神宗, 1572-1620)황제의 격사곤복(縹絲袞服)이다. 이 곤복의 문양은 복잡하여 주문(主紋)과 지문(地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문은 279개의 만자문(卍字紋), 256개의 수자문(壽字紋), 301개의 편복문(蝙蝠紋)과 271개의 여의운문(如意雲紋)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의복 전체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어 만수홍복여의(萬壽洪福如意)를 상징하고 있다. 여기에 만자문과 여의운문에는 표대(飄帶)인 리본이 달려 있어 화려한 모습을 더해주고 있다.[그림 1]

같은 정능 출토의 단령(團領) 은, 호로형(葫蘆形) 즉 표주박 모양으로 도식화 된 수자(壽字) 상부에, 아래로 향하고 있는 표주박의 입구를 막고 있는 박쥐문양이 있다. 본래 호로(葫蘆)도 복록(福祿)의 해음으로 그 줄기가 잘 뻗어나가고 다종(多種)식물로 자손만대의 영원번영, 행복창성을 상징하고 있다. 문양은 박쥐와 수자(壽字)를 표주박에 넣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 놓은 형상을 하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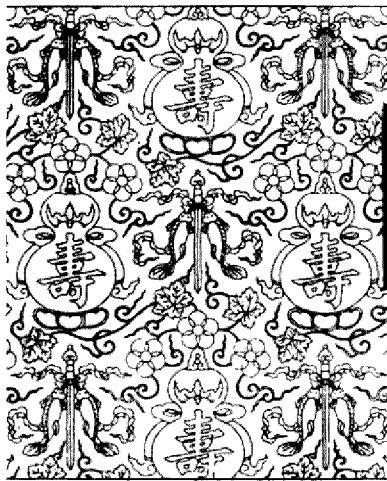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명대의 직물문과 길상문자가 보기 좋게 배합하여 미(美)와 길상(吉祥)내용이 통일되어 화려하게 복식예술의 특색으로 나타난다.

2) 청대의 박쥐문양

주지하다시피 견직물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에서 기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발굴 중 가장 이른 연대의 견직물 실물이 출토되는 지역은



[그림 1] 격사관복
(定陵, p.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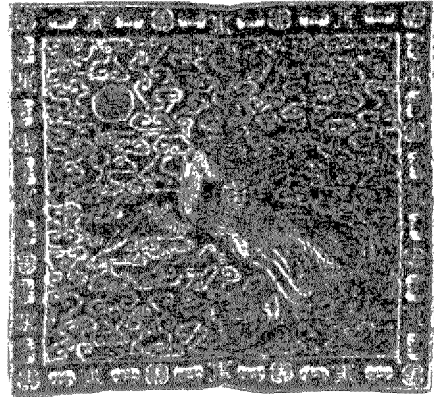


[그림 2] 단령
(定陵, p. 106)

양소문화와 용산문화의 접경지대인 황하하류 지역이다. 그 후로 주(周)시대에 각가지 색깔의 실을 사용하여 무늬를 넣었으며 청대(淸代)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짜임이나 얇은 직물이 생기고 색사가 풍부해짐으로써 자수가 현저하게 발달하였으며 자수의 도안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1) 의복에 나타난 박쥐문양

청대에는 황제의 조복을 비롯한 문무관 관복 그리고 문무관 보자에 박쥐문양이 많이 보인다. 청대 1품에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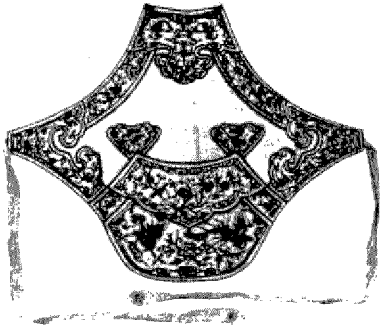


[그림 3] 문1품 선학보자
(龍袍, p.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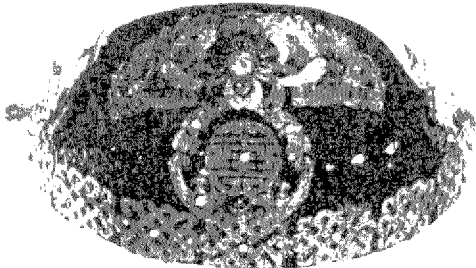


[그림 4] 무1품 기린보자
(龍袍, p. 104)

품까지의 문관보자(文官補子)를 보면, 1품 선학(仙鶴)보자[그림 3]의 테두리 안에, 수자(壽字)사이에 도식화된 박쥐문을 배치하고 있다. 무관보자(武官補子)에는 1품 기린(麒麟)보자[그림 4]에 도식화된 5마리의 박쥐문양이 분홍색 혹은 붉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청대 문무관 방보자(方補子)는 우리나라의 흉배와 같은 것으로 문관은 조류(鳥類)를, 무관은 수류(獸類)를 주문양으로 넣어 품계를 표시한 것이다. 여기에 박쥐문양을 비롯한 각종 길상문양을 넣어 화려하게 만들고 있었다. 박쥐문양의 시문상황을 보면, 수자문양을 사이에 넣고 가장자리를 장식하거나, 운문사이를 자유로이 날고 있는 모습이다. 문무관 보자에서는 지위가 높으면 5마리, 3마리, 2마리이며, 9품 이하인 어사보자는 1마리밖에 넣지 못하고 있어, 계급에 따라 박쥐문양의 숫자도 달랐다. 청대 명부복식에서 흑지하피가 있다. 이것은 가슴 한가운데 선학(仙鶴)보자가 있고, 양단에 대칭으로 운문과 박쥐가 2쌍 그리고 하단에 역시 운문과 박쥐가 대칭으로 있다. 이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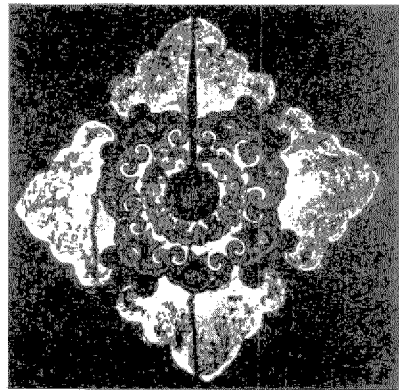
[그림 5] 두군(가슴가리개)
(天理大學參考館圖錄, p. 56)



[그림 6] 흑단점취전자
(中華服飾藝術源流, p. 445)



[그림 7] 머리장식
(中華歷代婦女裝飾, p. 62)



[그림 8] 목장식
(中國民間美術全集6, p. 177)

이 청대의 용포에는 용문과 함께 박쥐문을 필수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2) 장신구에 나타난 박쥐문양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슴가리개인 두군(肚裙)이 있다 이것은 실크나 면으로 만들어서 속옷처럼 착용하다가 나중에는 장식용으로 발전하여 겉옷 위에 착용하게 되었다 [그림 5]는 신부가 혼례시에 썼던 것이다. 길상을 상징하는 각종 문양이 있고 상부에 박쥐가 있다.

쓰개의 일종인 흑단점취전자(黑緞點翠鈿子)[그림 6]는 비취로 장식된 박쥐와 끝없는 행복을 상징하는 반장문양이 있다. 비취는 중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보석이다. [그림 7]은 머리를 장식하던 것이다. 푸른색 비취로 장식된 박쥐가 있다. [그림 8]는 목둘레를 장식하는 것인데 가운데에 박쥐가 둥글게 장식되어 있다.

이상 중국의 의복과 장신구에 나타난 박쥐문양의 형태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명대의 직물에 표현된 박쥐문양은 여러 가지의 길상문양이 함께 세밀하게 표현된다. 반면 정교하고 기교적인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박쥐를 도안화·단순화한 표현도 사용되었다. 이는 화려하면서도 장식적이고 풍요한 색채를 즐겼을 뿐 아니라, 정확한 형태와 보수적인 양식을 추구했던

명대의 화풍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청대의 사실적이고 화려한 형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청대에는 대체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색채 사용이 명대의 양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청을 건국한 만주족이 한족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로 인해 그들만의 창조적인 예술 활동 보다는 과거의 것을 계승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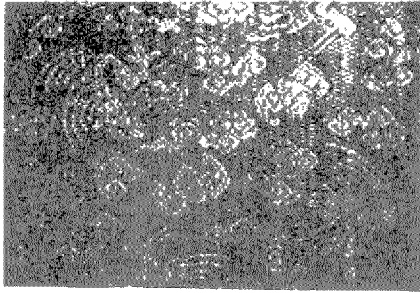
2. 한국

1) 조선시대의 박쥐문양

(1) 의복지문에 나타난 박쥐문양

직조를 통해 옷감에 문양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고서(古書)인 『삼국지』에 “누에와 뽕을 알아서 비단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을 통해 이미 삼국시대 이전에 누에치기가 있었다면, 견직물도 물론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삼국시대에 이르러 점점 발달하여 직조를 통한 문양은 견(絹)직물을 중심으로 점차 복잡하면서도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직물에 표현된 문양은 직물 자체에 문양을 넣어 짜는



[그림 9] 당의의 박쥐문
(SYMBOLIC and DECORATIVE MOTIFS of
KOREAN SILK, p. 105)



[그림 10] 예복소매의 박쥐문
(SYMBOLIC and DECORATIVE MOTIFS of
KOREAN SILK, p.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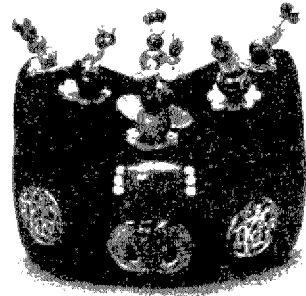
지문(地紋)이 있는데, 지문이 있는 직물은 값이 비싸서 일반 백성들이 접하기 어려웠고, 주로 귀족과 상류층에서 사용했으며 금사를 넣어 짠 직물은 금색의 광채가 화려하여 주로 원삼이나 스란치마 등에 사용되었다. [그림 9]는 초록색 실크로 만든 얇은 당의인데, 구름과 박쥐, 학을 약화시켜서 적절하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10]은 여자 예복의 소매부분에 장식하였는데, 수자(壽字)와 박쥐, 보석 등이 약화되어 나타난다.

다남을 상징하는 박쥐가 시문된 직물을 여자용 저고리의 깃·결마기·수구에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아, 아들을 낳고자하는 여인들의 간절한 바람과 더불어 박쥐문양의 주술성(呪術性)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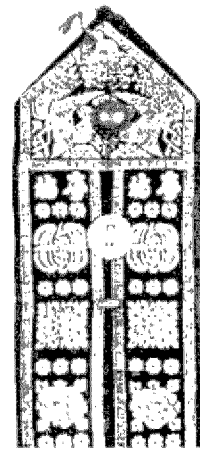
(2) 금박에 표현된 박쥐문양

금박은 직물 위에 금박판을 만들어 금박문을 올리는 것을 말하며, 금박이 금수와 금직보다 활발히 이용된 것은 당시 직조기술이 미흡했기 때문에 목판에 문양을 새겨 찍는 것이 간편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금박의 기원은 확실치 않으나, 왕가에서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여염에까지 퍼져나가 대중화 된 것으로



[그림 11] 족두리 (온양민속박물관)



[그림 12] 도투락댕기(온양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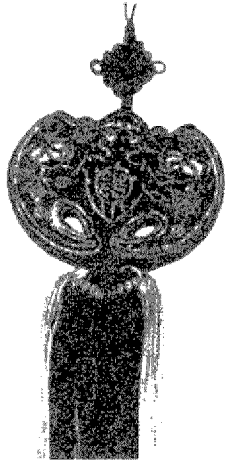
보인다. 금박문은 주로 여자예복인 원삼, 노의, 당의, 땡기, 주머니, 스란단과 옷고름 등의 부분적인 장식에 사용되며 조선시대 남자 아이들이 관례시에 입는 사규삼에도 나타난다.

박쥐문양이 여자용 땡기류, 쓰개류, 원형의 깃, 당의의 깃 등에 많은 것은, 박쥐의 번식력을 바라는 뜻이 있으며, 오복(五福)중에 다남(多男)이 들어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림 11]은 솜을 넣어 두툼하게 만들고, 검은 비단을 씌운 족두리인데, 대체적인 형태는 다른 족두리와 비슷하나 장식이 더 많다. 앞에는 박쥐장식과 함께 복자(蝠字) 두 개를 붙이고 뒤에는 나비장식을 달았다. 여기서 박쥐는 왕성한 번식력을, 그리고 복자(蝠字)는 복(福)을 상징하는 것이다. 상부 중앙에는 화문(花紋)의 옥판(玉板)위에 구슬을, 주변에는 산호·밀화·비취 등을 구슬을 꿰어서 세웠다.

[그림 12]는 금박으로 봉황과 길상문자, 그리고 여러

2) 심연옥,(2002), 한국직물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p. 16. 재인용



[그림 13] 자수노리개
(한국전통문양 p.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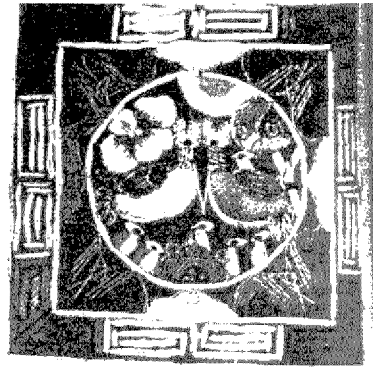


[그림 14] 필낭
(전통매듭 p.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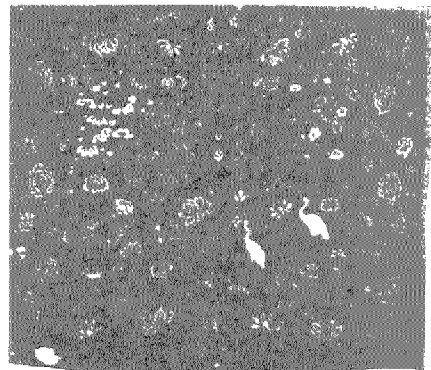
가지 화문과 박쥐문을 박아 장식한 도투락땡기이다. 머리를 마주댄 한 쌍의 박쥐가 좌우대칭으로 시문되었다.

2) 장신구에 나타난 박쥐문양

장신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노리개이다. 그리고 주머니류와 베갯모, 방석 등에도 많이 나타나며, 가락지나 단추 등,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은 박쥐수 노리개인데, 박쥐의 몸체·눈·수염이 노리개의 형태를 이루는 날개선 안에 도안화하여 표현되었다. 또한 날개 관절을 노리개 상부와 몸통 옆으로 독특하게 나타냈다 [그림 14]는 필낭이다. 필낭의 아래쪽으로는 십장생 문양을 수놓았고, 뚜껑부분의 위쪽으로는 구름과 함께 비례하는 박쥐가 각각 다른 모양과 색



[그림 15] 베갯모
(전통문양, p. 58)



[그림 16] 복은공주방석
(조선왕조복식사론, p. 214)

상으로 수놓아져있다. [그림 15]는 아름답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의미의 원앙 문양이 들어 있고,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에 아주 간략한 형태의 박쥐가 수놓아져 있다. [그림 16]은 복은공주의 유품인 수방석으로, 방석 외변사각에서 그 각선을 따라 내측으로 향하여 5마리씩 모두 20마리의 박쥐가 묘사되어 있다.

이상 한국의 의복과 장신구에 나타난 박쥐문양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자수의 박쥐문양은 다소 단순하고 도안화된 형태로 표현되지만, 실의 농담에 의해 지문에 나타나는 박쥐문양보다 입체감을 갖는다. 또한 대체로 노리개나 베갯모, 방석, 주머니 등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다른 길상문양들과 함께 조합하여 나타난다.

금박을 이용하여 박쥐문양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궁중에서나 혼례시에 착용하는 복식의 일부인 땡기나 스란단의 장식에 나타난다. 이 외에도 어린이용 전복과 복건, 원형의 깃 들레와 사규삼의 진동 부분에 매우 양식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V. 박쥐문양의 유형 및 상징성

1. 박쥐문양의 유형분류

유형분류의 기준은 장수경의 유형분류를 사용하였다. 장수경의 분류에서는, 한국전통문양을 단순화의 정도에 따라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³⁾

1) 조형상의 분류

첫째, 사실형(事實形)은 박쥐를 실제와 같은 형태, 즉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사실형 표현은 중국에서는 명말~청대의 직물과 용포, 자수공예품에 자주 나타난다.

둘째, 양식형(樣式形)은 문양을 사실적인 형태로 표현

하되 약화된 선을 사용하여 단순하며 자연스러운 구도를 갖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기하학적으로 원·삼각·사각 등을 채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대칭구조가 많으며, 박쥐의 형태가 다소 생략되어 단순하게 표현된 것이다.

셋째, 추상형(抽象形)은 박쥐문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비구상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2) 구성상의 분류

첫째, 단독형(單獨形)은 한 마리의 박쥐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단독형의 박쥐를 의복의 전체 바탕에 나타내었고, 주로 장신구에서 볼 수 있다

둘째, 쌍형(雙形)은 두 마리의 박쥐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데, 주로 박쥐 두 마리가 마주 보는 형태이며 좌우

〈표 1〉 박쥐문양의 유형분류표

분류	중국		한국	
	문양	사용된 예	문양	사용된 예
조형상	사실형 	직물		직물
	양식형 	보자		복건 전복
	추상형 	가슴가리개		안경집 화관
구성상	단 형 	직물 장신구		깃둘레 노리개
	쌍 형 	쓰개		도투락맹기
	단 형 	직물		항갑조리개 앞맹기

3) 장수경,(1994). 한국 전통문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2권제2호, p.290

대칭으로 나타난다.

셋째, 군형(群形)은 박쥐가 3마리 이상 여러 마리로 표현된 것이다. 주로 다섯 마리로 표현된 오복봉수형이 많다.

3) 구도상 분류

문양을 표현함에 장식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가득 메우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배치하는 구도를 갖는다.

첫째, 충전형인데 충전유형은 대상 전체면에 문양을 가득 채우는 형식을 말하며 대부분 연속문으로 표현된다. 직물에서의 문양은 제작방법상 단순한 형태로 반복해서 나타나므로 이를 응용해 다른 공예품에까지 사용되기도 한다.

중국에서 충전형으로 표현된 경우는 명대와 청대 모두 직물에 나타난다.

둘째, 산점형으로, 장식하려는 표면을 같은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그 안에 단위문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단위문이 한 종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두 종류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의 산점형은 여러 종류의 단위문을 직물에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명대의 직물이 이에 속한다.

셋째, 부분 배치형으로, 장식하려는 대상에 문양을 두 곳 이상 부분적으로 장식한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보자의 가장자리와 장신구에서 주로 볼 수 있고, 한국에서는 전복이나 복건 등의 모서리 부분에 이러한 형식으로 장식하였다

2. 박쥐문양의 상징성

1) 중국

중국에서 박쥐를 지칭하는 편복(蝙蝠)은 글자의 복(蝠)이 복(福)을 상징하고 있어, 전통적 사상에서의 박쥐의 부정적인 견해는 문양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하여蝠=福이라는 사상은 곧 오복(五福)과 직결되는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중국 사람들이 전통길상 심리 중에 가장 선호하는 글자는 복(福)이다. 즉 복(福)은 장수(長壽)와 부귀

(富貴)를 의미하는 가장 경사스러운 글자로 박쥐인 편복(蝙蝠)의 복(蝠)자는 복(福)자 혹은 부(富)자와 발음이 비슷한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겠다.

(1) 복수쌍전(福壽雙全)

의미는 복(福)과 수(壽)를 모두 갖춘다는 것이다. 민간에서 많이 애용한 길상문양으로, 한 마리의 박쥐를 표현하고 있다. 복수(福壽) 즉 행복과 장수는 길상문양 중 최고이다.[그림 17]

(2) 복종천강(福從天降)

한 마리의 박쥐가 구름 속을 비래(飛來)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도안은 해음(諧音)과 상징(象徵) 수법으로서, 행복 장수가 도래함을 의미하고 있다.[그림 18]

(3) 복수면장(福壽綿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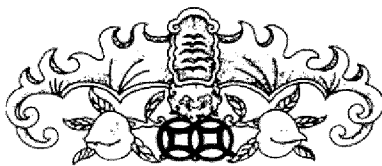
이 문양은 박쥐·수(壽)자와 반장(盤長)으로 구성된 길상도안이다. 박쥐와 수자는 복(福)·수(壽)의 상징이고, 반장은 영무진두(永無盡頭)의 함의가 있다. [그림 19]

(4) 복수여의(福壽如意)

이 문양은 여의(如意)와 박쥐·수(壽)자로 구성되어 있어, 행복·장수를 해음하여, 자신의 희망하는 바를 성취함을 상징한다.[그림 20]

2) 한국

박쥐는 한국에서도 중국과 같이 장수와 행복을 상징한다. 갈홍의 『포박자』에는 “박쥐가 천년을 살면 흰 색으로 변하는데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박쥐를 먹으면 장생한다”고 이르고 있다. 또한 『천문지』에 의하면 박쥐는 직녀성의 대리자로 묘사되고 있다. 직녀는 잘 알려져 있듯 베 짜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여인이다. 베를 짜고 그것으로 옷을 만드는 등 집안 살림을 상징하는 직녀의 대리자라는 것은 즉, 집안의 행복을 박쥐가 책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박쥐가 다남



[그림 17] 복수쌍전
(東方圖像榜·蝴蝶蝙蝠, p. 159)



[그림 18] 복종천강
(福壽吉祥圖案, p. 150)



[그림 19] 복수면장
(中國傳統吉祥圖案, p. 132)

(多男)의 상징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의 길상문양 중에서도 수(壽)·부(富)·귀(貴)·강녕(康寧)·다남(多男)의 오복(五福) 중 다남(多男)의 상징으로 이 박쥐문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복(蝠)’은 ‘복(福)’과 같은 음(音)으로 복신(福神)의 사신(使神)으로서 행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애용되었다.

VI. 한·중 박쥐문양의 유형 비교

1. 조형상 비교

한국과 중국의 의복과 장신구에 표현된 박쥐문양을 조형상으로 비교한 결과 중국에서는 사실형이, 한국에서는 양식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중국에서의 사실형 박쥐문양은 직물과 자수 공예품에 자주 나타난다. 이는 송대에 형성된 산수화풍의 영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국에서의 사실형은 직물에서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양식형은 문·무관 보자의 가장자리에서 수자(壽字)와 박쥐문양이 양식화 되어 나타났고, 한국의 양식형은 금박장식과 자수공예품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이다.

추상형의 박쥐문양에 있어서는 중국의 청대에 가슴가리개와 목둘레 장식에서 볼 수 있고, 한국의 추상형은 조선시대의 자수노리개 종류에서 박쥐의 형태가 완전히 원형에서 벗어난 형상을 볼 수 있다.

이상 조형적인 면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즉 중국에서는 직물을 비롯한 문양 표현 대상 전체에 사실적인 형태가 많고, 한국의 경우는 직물에는 사실형의 표현이 많고, 추상형은 자수용품에서 많이 보이며, 양식형은 금박과 자수공예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림 20] 복수여의
(中國傳統吉祥圖案, p. 162)

2. 구성상의 비교

한국과 중국의 구성상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면,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단독형이 의복과 장신구 전반에 나타난다.

쌍형의 경우는 중국에서는 쓰개와 가슴장식에서 보이고, 한국에서는 혼례시에 쓰이는 도투락머기에서 다정하게 머리를 마주 댄 형태로 나타났다.

군형의 구성은 중국과 한국에서 직물에 많이 표현되었는데, 한국에서는 향갑노리개와 방석, 베갯모 등에서도 볼 수 있다.

3. 구도상의 비교

구도상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중국에서는 충전형이 많았고, 한국에서는 부분배치형이 많았다.

충전형 구도는 직물문양에 나타나며, 이는 제작방법상 단순한 반복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에서의 산점형 구도는 직물에 주로 나타나고, 여러 종류의 단위문이 직물에 사용되었다.

부분배치형은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전복과 복건, 깃들레에 금박으로 주로 표현되었다. 중국에서는 장신구에서 나타났다.

VII.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중국의 박쥐문양이 한국의 박쥐문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박쥐문양의 상징성을 통해 전통문양으로서 박쥐문양에 함축된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고, 중국과 한국의 전통문양의 하나인 박쥐문양의 유형을 분류하며, 지역적·역사적 형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복식에 나타난 지문·금박·자수공예품을 대상으로 한 박쥐문양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는 도교 신선사상이 기원이 되어 각종 복식 및 공예품에 '길상'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표현되었고, 한국에서는 '길상'의 상징 외에 '다남'의 의미를 강조하였던 것은, 조선시대의 뿌리 깊은 유교의 영향으로 보인다.

둘째, 조형면에서는 중국은 사실형이 많았으며, 화려하고 곡선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염직공예의 발달과 궁중문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양식형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는 소박하고 서민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회적인 경향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셋째, 구성면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단독형이 많이 나타났지만, 중국은 의복과 장신구에 다른 길상문과 복합적으로 구성되었고, 한국에서는 단독형을 양식화하여 금박으로 표현한 것이 많았다. 이는 금박판을 이용하여 금박을 찍는 것이 간편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넷째, 구도적인 면에서 보면 중국은 충전구도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의복 전체에 여러 가지 길상문양을 빈틈없이 채워 넣은 것이 많았다. 이는 직조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문양을 많이 짜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복과 복건의 모서리와 깃 둘레, 방석과 베갯모의 사각의 면에 부분적으로 배치하였다.

다섯째, 상징면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도교의 신선사상과 결부되어 장수와 행복의 상징으로 용포와 보자(흉배)에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였고, 장신구와 연화공예품 및 직물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장수와 행복 외에 '다남'의 의미를 특히 강조하여 여인용품에 의도적으로 사용하였고, '벽사'의 의미로 아동용 전복과 복건에 애용되었다. 이는 한국에 만연하였던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중국에 원류를 두고 있는 박쥐문양이 한국에 전래되어 그 상징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밝혀진 한·중 박쥐문양의 표현적 차이는 양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민족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박쥐문양 뿐만 아니라 다른 문양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잘 응용하여 세계화 추세에 의해 전통과 국가적인 미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오늘날의 경향에 맞추어 산업디자인에 응용한다면, 차별화된 문양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박쥐문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후속으로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박쥐문양, 상징,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

참 고 문 헌

-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김은영 (1989) 전통매듭, 대원사.
 김종대 (2001)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한영문화사.
 심연옥 (1998) 중국의 역대직물, 한림원.
 _____ (2002) 한국직물 오천년, 고대직물연구소.
 안명숙, 김용서 (1998) 한국복식사, 예학사.
 이상은 (1992) 조선왕조복식사론, 동방도서.
 이영덕 (1991)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9, 웅진출판사.
 임영주 (2004)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허균, 유남해 (1995) 전통문양, 대원사.
 온양민속박물관 (1988) 온양민속박물관.
 한국섬유공학회 (1998) 한국전통직물, 창간호.
 高漢玉·屠恒賢 (1996) 衣裝, 上海古籍出版社.
 周汎·高春明 (1988) 中國歷代婦女裝飾, 學林出版社.
 李祖定 (1989) 中國傳統吉祥圖案, 上海科學普及出版社.
 王智敏 (1994) 龍袍, 藝術圖書公司.
 張曉凌 (1994) 中國民間美術全集 服飾圈(下), 山童教育出版社.
 陳益宗 (2001) 東方圖像榜·蝴蝶蝙蝠, 湖南美術出版社.
 黃躍東 (1993) 福壽吉祥圖案, 吉林美術出版社.
 黃能馥, 陳娟娟 (1994) 中華服飾藝術源流, 高等教育出版社.
 定陵 上 (1990) 定陵博物館.
 天理大學浮屠天理參考館圖錄 (1986) 天理大學出版社.
 Yoon-Hee(Suk) Kwon (1988) *SYMBOLIC and DECORAYIVE MOTIFS of KOREAN SILK: 1875~1975. IL JI SA.*
 박춘순, 김재임 (2000) 청조의 용포소고, 한국복식학회, 복식50-3.
 심미숙 (1989) 박쥐문을 이용한 식기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은 (1999) 조선시대 박쥐문양을 응용한 자수 모자 디자인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일수 (1980) 조선조 공예에 나타난 박쥐문양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장수경 (1994) 한국 전통문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2권 제2호.
 전진영 (2003) 한·일 전통복식에 나타난 문양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희옥 (1990) 조선조후기 복식류에 나타난 박쥐 문양에 관한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 01 접수; 2006. 05. 24 채택)